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정책 방향 제시

안보환경 진단 등 국방정책 소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백서 발간사에서 우리 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욱 장관이 국방FM에 출연해 방송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양동욱 기자

2년에 한 번 우리 국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방백 서가 2월 2일 발간됐다. 국방부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 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 국방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967년 첫 발간 이후 24번째로 나온 이번 백서는 지 난 2018년 국방백서가 발간된 뒤 2년 동안의 성과와 미 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현안 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방백서를 제작했다"면서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 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백서는 문 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번 백서는 안보환경에 대한 진단과 국가안보전략 등 국방정책에 대한 모든 것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등 국방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주요 성과와 미래 계획, 9·19 군사합의 이행 성과, 우리 군의 코로나19, 군 의료시스템 개편 대응과 같은 현안이 다뤄졌다.

또 국민의 관심사인 북한의 동향과 관련, 지난해 열병식에서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군사 지휘구조와 미사일등 군사력 변동에 대한 내용, 자료를 수록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방 차원에서 분석했다. 또 주변국 군사력 현황, 세계 주요국가 국방비 현황 등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심층적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일반자료와 지난 2년 동안 국방부가 강력히 추진한 정책을 소개하는 특별부록도 수록했다. 백서 전문은 국방부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달 중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요약본도 발간할 계획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우리 군은 안보 상황의 도전 속에서 강한 힘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 국방백서가 우리 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우리 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맹수열 기자

17

MARCH 2021 국방저널

국제 정세 분석 평가…혁신강군 건설 비전 등 제시

2020 국방백서 무엇이 담겼나?



국방부는 국방·안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망라한 2020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 김포시의 강안 경계초소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용학 기자

국방부가 2월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는 현 정부에서 두 번째로 발간한 국방백서다.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일반적인 백서와 달리 향후 추진 방향까지 담겨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국방백서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국가안 보전략과 국방정책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 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운영체계 확립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 한 군사적 뒷받침 등 8개 장으로 구성됐다. 지난 2년 동 안 국방·안보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 의 의의와 이행 성과,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우리 군 의 코로나19 대응,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전 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등도 특별·일반 부록에 닦았다.

국제 안보정세와 북한 정세. 군사위협 분석

국방부는 우선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를 기술하고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평가했다. 먼저 국제 정세 분야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이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면서 국제안보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다"면서 "국지적으로는 영토·종교 등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안보정세의 경우는 동북아 역내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

나19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변수가 접목돼 역내 안보구 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과 관련해서는 2019~2020년 북한 대내·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최근 변화사항과 군 사구조 변동, 북한 주요 전력 현황 및 핵·WMD 능력 등 을 담았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방부 격인 인민 무력성의 명칭을 지난해 10월 '국방성'으로 바꾸면서 인 민무력성 예하로 편제됐던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 중 공병군단을 총정치국 소속으로 변경했다. 또 각종 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하고,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 병 사단도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더불어 백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인민군 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사 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 제시했다고 명기했다. 특히 제 2장 2절에 작성된 '적' 표현은 『2018 국방백서』 내용을 유지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 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와 대남관계 개성 의지를 병행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4D전략'으로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 구축

백서에는 국지도발·전면전 대비태세, 핵·WMD 위협 대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실전적 교육훈련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노력 등도 소개됐다. 특히 핵·대 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동맹의 포 괄적 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4D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4D전략은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으로 '포괄적'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ory), 방어(Defend)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더불어 백서에는 북방한계선(NLL) 과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 확립 기조도 자세히 명시됐다.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부대 구조 및 인력구조 개편, 예비전 력 정예화, 전력증강, 스마트 국방 혁신 등이 주요 추진 사항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국방 전 분야 적용을 위해 기술·기반 혁신, 국방운영 혁신, 전력체계 혁신 등 3개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추진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국방 문민화 및 개방형 국방운영, 국민편익 증진, 방위 사업 투명성 및 방위산업 경쟁력, 국방예산 운영계획 등 도 기술했다. 국방부는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방 문민화의 2019~2020년 실적을 포함했다"면서 "국방태세를 굳건 히 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1년 국방예산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계획인 '2021~2025 국방증기계획'도 함께 공개했다"고 설명 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되짚어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도 백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백서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 화·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 뢰를 기반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에 서 개최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를 구체적 으로 다루면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백서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 진현황과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 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소개됐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주요 합의 사항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이행 현황 등을 담았다"면서 "남북통행의 안전보장, 군 통신 선 운용,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 활 성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 및 국군 포로문제 해결을 위 한 노력도 되짚었다"고 설명했다. [12]

8 MARCH 2021 국방저널 19

대체복무·일과 후 휴대전화…국민 관심사 세부 설명

국방백서 특별부록, 무슨 내용 담겼나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일선 장병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일보 DB

2월 2일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5가지 분야를 선정,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9·19 군사합의, 6·25전쟁 70주년 사업,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일과 후 병휴대전화 사용, 코로나19 대응 등이 그것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과거 남북 군사당국 이 체결한 10여 차례의 군사 분야 합의와 달리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제적 이행조치들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오랜 적대와 대립의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꿔나가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특히 지난해 5월 동부전선 우리 쪽 감시초소(GP)를 향한 총격사건 외에는 어떤 군사적 긴장행위도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사격을 제외하고는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 사격이나 기동훈련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9·19 군사합의가 이끈 결과라는 평가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후 도발은 동부전 선 GP 총격 1건뿐이고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범위를 넓혀도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포함한 2건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호 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 한강하 구의 평화적 이용 등 다양한 성과도 소개했다. 지난해 진행된 6·25전쟁 70주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위 원회와 별도로 국방부 차원의 사업단을 조직해 내실 있는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유엔 참전국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하고, 전쟁의 상흔과 극복과정을 기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 매년 지속되는 기념사업 역시 이런 취지를 계승해 그날의 기억과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가 본격 도입됐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 편입신 청을 받고 7월 15일 첫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한 뒤 11월까지 총 730명이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국 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106명으로 이들은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받은 뒤 대전교도소 등에 배치돼 합숙 복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시행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우리 군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한편 자기계발, 건전한 여가 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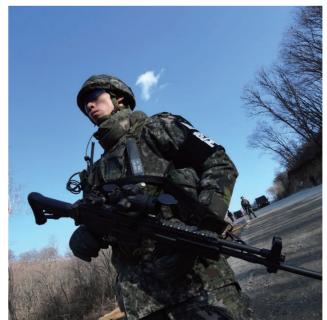
보장을 위해 2017년 4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2019년에는 그 대상을 GP, 훈련병을 제외한 모든 부대로 확대하며 규정과 제도를 정비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상호소통과 병영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돼 부대원 단합과 전투력이 향상됐고 휴대 전화 사용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이 무형의 전력에 영향을 미쳐 전투력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또 병사들에게 심리적안정감을 주는 등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청년 드림(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등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군의 헌신은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특별부록 속에서 군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군 내 감염 유입·확산 차단 노력,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

맹수열 기자

21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남북한의 9·19 군사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사진은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일보 DB





상단) 남북 군 관계자들이 남북 공동 유해발굴 도로개설 현장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하단) 국방백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의 헌신도 높이 평가했다. 사진은 일선 장병들이 지역사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일보 DB

MARCH 2021 국방저널